

심각한 새누리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오전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국회 마비' 피켓팅을 한 뒤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 오늘이 분수령

선거구 획정안 처리 예정일…野 중재안 제시 與 테러방지법원안 고수…출구전략 마련 주목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 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 터(무제한 토론)가 25일에도 사흘째 진행되 고 있는 가운데 26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될 예정이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가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존의 여야 합 의대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진행하고 있는 무 제한 토론을 중단하거나 새누리당이 더민 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민주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에 반발 하는 새누리당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표 결을 기다리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 의원 제안)이 '마지노선'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논란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 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을 규정한 법안 제9조와 이를 위해 도·감청을 허용한 부 칙 제2조다. 더민주는 이 두 조항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누리당 은 두 조항을 살려두되, 보완책으로 국정 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 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 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고, 대책위 소 속 인권보호관이 이를 감시·견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 터가 중단되면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곧바 로 표결에 부쳐진다.

새누리당은 수정안의 추가 수정으로 '누 더기 법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구 획정안을 26일 처리하려면 더민 주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만

큼 더민주와 물밑 접촉을 할 필요도 없다 는 완강한 입장이다.

이에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 의 도·감청 등 정보수집 권한을 남용할 소 지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추적권 조항을 삭제해야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 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기존 안 보다 강 화된 보완내용을 담은 대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더민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과 만 나 중재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여당이 받 아들이라고 압박했다. 더민주에 따르면 정 의장의 중재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개 정해 무제한 통신 감청에 대한 제재 장치 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더민주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선거법 처리 를 계속 늦추면서 필리버스터를 내달 11일 임시국회 종료 때까지 끌고 가기에는 정치 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으로 해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구 획정안 처리 불투명 … 29일이 마지노선

획정위 세부안 진통…전남 등 증감 지역구 게리맨더링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5일 낮 12시로 예정 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로 예정했던 국 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도 일단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본 회의 처리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서도 "여전히 획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 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 측은 이날 밤 늦게 획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

나 일각에서는 이마저 불가능하지 않으냐 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3일 여야간 합의한 '선거 구 기준안'을 획정위에 전달하면서 이날 정오까지를 획정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했

이에 따라 획정위는 지난 23일부터 여야 합의안인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안을 기준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획정안 마 련에 착수했다. 이틀 연속 새벽까지 회의 를 진행했지만 통·폐합 및 분구 지역에 대 한 구역 조정, 경계 조정에 있어 의원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진통을 겪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선거구가 늘어나는 서울 강남, 경기 수 원, 거대 지역구 탄생이 점쳐지는 강원, 지 역구가 경계가 복잡한 전남지역 등을 놓고 게리맨더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획정위는 전체 9명으로, 위원장을 제외하면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다. 의 결은 전체위원 9명 중 3분의2인 6명 이상 이 찬성해야 한다.

결국, 여야가 동수로 획정위원을 추천 한 가운데, 각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 원들의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벌써 29일 본회의 처리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入) 4·13 총선 현장

임내현, 용봉 IC 설치 주민설명회 참석



국민의당 임내현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는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한 용봉IC 상행선 설치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 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 부, 도로공사, 광주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을 최초로 확보해 20년 숙원사업을 추 진할 수 있게 됐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민들의 불 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정원 댓글 진실 밝히겠다"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26 일 열릴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게 된 과정에 서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개입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한 축을 이루는 재판으로, 박근 혜 정권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8월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권 의원을 '모해위증'혐의로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형석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을 예비후 보는 25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 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여성들은 20대까지는 남성보다 취업률이 높지만 임신・출산・육아가 시작되 는 30대 이후에는 고용률이 남성보다 크게

줄어 경력단절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력단 절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광주여성새로일 하기센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으로 맞춤형 취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국민의당 최경환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는 25일 광주시 지체장애인협회와 광주시 장애 인총연합회 간부들과 선거사무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단체 간부들은 "정 책을 세울 때 장애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시관계자, 장애인 당사자와 단

체와의 상시 회의 체계를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 예 비후보는 "정책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애로사항과 주요현 안, 제안사항 등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면서 "광주장애인회관 건립과 시립장애인복지관 증·개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광주 남구 공식 출마 선언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25일 "정치혁신과 호남정치 복원을 통해 광주시 민이 염원하는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주체 가 되겠다"며 4·13 총선 광주 남구 출마를 공 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지 난 6년간 광주 남구에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첨단산단과 첨단영화·게임산업단지 유치 등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의 4년은 광주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새 로운 광주 경제성공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하중, 사무소 개소식 대신 현장 소통



국민의당 김하중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지 않고, 골목과 동네를 중심으로 한 주민 과 소통하는 현장 위주의 선거운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후보자들이 세몰이식 조직 동원 형 태의 개소식은 국민의당 정치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면서 "차 라지 주민에게 한발 더 가가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 과 함께 보다 나은 서구을을 만드는 아이디어와 비전을 설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록, 광주 광산갑 출마 선언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이 4·13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변인 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와 정치혁명의 담대한 변화를 시 작하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는 "호 남 정권교체와 정치교체에 대한 절박함이 국

민의당을 만들고 호남민심의 힘이 정권교체와 정치교체의 계 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 저녁 이 있는 삶, 따뜻한 사회는 목표이자 광주의 미래"라며 "새인 물로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꾸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성근, 광주 북구갑 출마 선언



국민의당 국성근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25일 "국민의 이익과 행복이 모든 것에 우선 하는 정치,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정 치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면서 광주 북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국 예비후보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치신인으 로서 새정치, 혁신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화학과(이학박사)를 졸업한 그는 전남대 자연과 학대학장을 지냈고, 현재 전남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홍진태 "서로 돕는 복지 동구 구현



더불어민주당 홍진태 동구청장 재선거 예 비후보는 25일 동구 용산동 빛고을종합사회 복지관을 방문해 무료배식 활동을 하고 복지 관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홍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웃이 이웃을 돕 는 복지동구를 구현할 것"이라며 "주민참여

형 복지공동체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증원 및 역량 강화, 복지공동체로 민관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각지대 및 기부자원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28일 선거 출정식·사무소 개소



국민의당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 비후보는 오는 28일 동구 학동 연합내과의원 에서 선거 출정식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 을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동 구민들의 좌절과 상실감을 털어버리고 미래 를 향해 전진하자는 의미에서, 선거 승리를

통해 '동구 재도약의 새로운 원년'을 만들겠다"면서 "문화예 술산업을 중심으로 동구 경제를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사 람이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투자대안, NPL실전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명쾌한 실전투자 물건위주로 강의!

1 2016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1, 18(월) ~ 2016. 3, 3(목)

2016. 3. 3 ~ 2016. 6. 9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18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gelo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062)230-7700~2 지도교수: 송응욱 010-9416-1200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목조주택 무료 공개강좌

3월 8일(화) 저녁7시~9시 광주대학교 호심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3월 9일(수) 저녁7시~9시 국립 목포대학교 (목포시 남약 캠퍼스)

3월 10일(목) 저녁7시~9시

전담강사 010-5766-5754

공개강좌 예약 필수, 강의실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남부대학교 삼애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H.010-5766-5754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 U-square **₩** U·square 점 STEAK ₩12.500~ 🖢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